

남북화해시대 가톨릭 평화운동의 과제

— 화해를 위한 교회의 성찰 —**

강 주 석*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가톨릭교회의 ‘이데올로기’ |
| II. 미군정과 가톨릭교회 | V. 성전(聖戰), 악과의 대결? |
| III. 공산주의 세력과의 충돌 | VI.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이 글은 20세기 냉전과 종교(그리스도교)의 상관관계를 한반도의 가톨릭교회 차원에서 고찰해보려는 시도이다. 해방이후 남한지역에서 실시된 미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교회는 철저한 반공주의노선을 견지했으며, 한국전쟁을 무신론적인 악의 세력과의 투쟁인 성전(聖戰)으로 인식했다. 가톨릭교회가 전(全)세계적인 차원에서 직면했던 공산주의세력과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더욱 심각하게 전개된 것이다. 이분법적인 냉전과 전쟁의 혼란속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지 못했던 교회의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아직 냉전적 대결구도를 깨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 냉전과 종교, 가톨릭교회의반공주의, 종교박해와성전(聖戰)

*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의정부 교구 신부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3장과 4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강주석, “공산주의를 만난 선교사들의 ‘마음’”, 북한대학원대학교, 2017.

I. 들어가는 말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 냉전의 갈등은 20세기 전 세계에 걸친 수많은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냉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는 세력의 균형 추구, 안보에 대한 우려, 당시 정치 지도자의 판단,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全)세계적인 갈등과 긴장에는 또 다른 차원도 있었다. 당시 정치 지도자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정신(ethos)’과 감정(emotion)’ 등이 바로 그것이다.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심층부에서 작동하면서,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진영의 부정적 인식과 두려움의 감정체계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냉전의 이면을 주목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시작된 새로운 대결에 특히 종교(그리스도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¹⁾ 이들은 특히 가톨릭교회의 역할에도 주목하는데,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교회는 갈수록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무신론의 종교’에 대해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반공주의를 실천했던 가톨릭교회가 냉전의 전선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던 한국 가톨릭교회도 이러한 보편교회의 반공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분단과 한국 가톨릭교회의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반공주의적 입장이 분단의 형성과 고착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논의는 가톨릭교회가 한반도 전체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는 것에만 치중했던 역사를 성찰하는 것이다.³⁾ 즉, 해방 이후 한국의 가톨릭교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분단을 감수하면서 남한에 반공주의 정부가 성립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 냉전에 미친 종교의 영향에 관해서는 Dianne Kirby ed, *Religion and the Cold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의 여러 편의 논문을 참조하라.

2) 문규현,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 II-1945년부터-』(서울: 빛두레, 1994);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1945~1953,” 『교회사연구』 제35집(2010), pp.69-97.

3) 강인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강인철, “해방 정국과 한국 천주교회,” 한국사목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교회는 이 땅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사회교리는 “세계 평화의 증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 사명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이며,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평화의 표지이며 도구이다.”⁴⁾라고 설명하면서, 평화를 위한 길로 용서와 화해를 제시한다. “교회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가르친다.”⁵⁾ 이어지는 글에서는 화해와 평화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반추하기 위해서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서있던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고자 한다. 특히 해방 이후 극도의 혼란을 경험했던 미군정과 분단 정권의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가 공산주의 세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작’을 살해하는 전쟁에 참여했던 어두운 과거를 성찰하는 이유는 비난과 단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분열과 적대의 죄 앞에서 화해를 중재하는 것을 교회 사명의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⁶⁾ 교회는 먼저 자신부터 화해에 이른 교회가 되어야 하며,⁷⁾ 이러한 화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참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⁸⁾

II. 미군정과 가톨릭교회

1. 미군정의 위기의식

해방 후 점령 초기의 미군은 사실 남한 좌익 세력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될 점령 과정과 통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점령군이 지방까지 진주하게 되자 미군정 당국은 지방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좌익 세력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미군정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된 것이다.⁹⁾ 이처럼 미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보다 더 중요한 상대가 풀뿌리 민중운동과 연결된 집단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좌익에 대한 경계는 위싱턴

4)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516항.

5)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517항.

6) 성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8항.

7) 성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9항.

8) 성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4항.

9)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의 기원』(서울: 일월서각, 2001), p.255.

의 정세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조셉 그루(Joseph Grew) 국무부 차관은 한국의 농민들이 전후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 러시아의 뒷받침을 받는 사회주의적 정권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쉽게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¹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같은 정치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조직의 주도권이 공산주의 계열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인공의 지방 조직까지 적극적으로 와해시키려고 노력했다. 특히 미군정은 여러 정파 가운데서도 조선공산당을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남한 국민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대신 점령 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세력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¹¹⁾ 실제로 한반도 점령에 대한 사전 이해와 준비가 부족했던 미군은 점령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게다가 이처럼 남한의 특정 정치세력들과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는 점령 정책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었다.¹²⁾

한반도에 상륙할 당시부터 미군에게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특히 미군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조직과 실무 인원을 당분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다. 여운형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정권 이양 교섭이 있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미군은 그러한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수용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발표된 미군 측 수뇌부의 포고문에 잘 드러난다.

1945년 9월 9일에 공포된 미 육군 태평양 총사령관 맥아더 명의의 포고령 1호 제2조를 보면,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

10) Kolko and Kolko, *The Limits of Power*, p. 279; FRUS(1945) 6:561,563; 장순,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성찰』(서울: 후마니타스, 2016), p.230 재인용.

11)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파주: 한울, 2005), pp.107-136.

12) 미군정 초기의 문제점은 1945년 11월 9일자로 나온 미국인 선교사가 작성한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던 선교사는 잡지 기고문에서 “미군정은 시작 단계에서 아주 서투르게 운영됐고, 언론에 대한 하지 장군의 초기 발표들은 한국인에 대한 연민(Sympathy)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mentality)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다. 메리놀 R2 667, “The World on the Move”. 이 글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메리놀회의 문서가 활용됐는데, 이 문서들은 Reel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Folder로 나뉘어 있으며, 개별 문서에 번호가 날인되어 있다. 여기서는 Reel 번호와 개별 문서의 번호를 표기한다.

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군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인의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적 혼란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명의의 포고문 역시 “주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 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어 재건이 지체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한국인들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룬다. 같은 시기의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미군의 메시지는 남한 사회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¹³⁾

미군 측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8월 15일 이후, 그리고 미군이 상륙한 이후에도, 일본군과 일본 경찰은 상당 기간 한국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미군 상륙을 환영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행진을 향해 발포하기도 했으며, 미군 진주 일주일 후에도 도쿄의 도메이 방송국의 뉴스가 방송됐다. 일본 경찰들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고, 일본 군대는 ‘미군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거리를 활보했으며, ‘미군이 재가한 일본군 파견대’라고 쓴 트럭 역시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¹⁴⁾

해방 이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한국인들에게 미군정의 이러한 조치들은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더군다나 일본인 고위 관리들까지 유임되는 것처럼 보이자, 남한 사회에서는 미군정의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한국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나서야 미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통치 조직 구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¹⁵⁾

이러한 배경에서 하지 사령관은 1945년 9월 29일자로 분노하는 한국인들을 달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 포고문은 3주의 짧은 기간에 미군정이 이룬 ‘성과’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조치들은 저항하는 민심에 대한 미군정의 고려를 보여주고 있다. 포고문은 우선 ‘아베 총독 및 각 국장의 파면, 그리고 미군정하에서 서울 중앙정부가 개조(改組)되었다는 것’ 등 일본인 관리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성과의 가장 우선순위로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미군정하에 있으며 일본인 경찰관이 차차 파면되고 그 대신 조선인 경찰관이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미군정의 시각에 근본적인

13) 소련군 총사령관 지스기야코프 대장의 포고문에서는 “조선은 자유적 공화국이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전(全) 권력은 조선 민중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全) 조선에 있는 전(全) 재산은 조선에 속합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김현식·정선태 편저,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서울: 소명출판, 2011), p.26, 56.

14) 장순,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성찰』, pp.236-237.

15)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p.214.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고문은 여전히 “만사를 참고 또 참아라, 현상에 있어서 조선의 장래를 위하여 제군이 할 수 있는 최대 공헌은 어디까지든지 만사를 참는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한다.¹⁶⁾

2. 미군정의 협력자들

위기에 봉착한 미군정은 이제 군정의 성패를 위해서라도 일본인 관리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인 관리를 신속하게 선발할 필요를 느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 상륙한 미군 중에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물을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미군정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한국인 인사를 추천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지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했던 선교사들이 당면한 인사 문제 등을 포함해서 미군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⁷⁾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배경을 가진 인물 가운데 하지 사령관의 참모로서 미군정 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은 조지 윌리엄스(George Z. Williams)다. 윌리엄스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 전문가’로서 미군정 사령관에게 발탁되었고, 미군정에서 통치 조직에 적합한 한국인 인사를 추천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윌리엄스의 부친은 한국에서 활동한 감리교 선교사였고, 본인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으며, 한국어까지 능통했던 점 때문에 미군정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다.¹⁸⁾

하가(Haga)에 따르면, 하지 장군이 윌리엄스에게 부탁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세

16) 김현식·정선태 편저,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p. 75.

17) 하지는 1945년 9월, 한반도에 상륙한 직후 2명의 선교사 자녀, 조지 윌리엄스와 윌스를 참모로 발탁했다. 1945년 10월에는 H. H. 언더우드, 1946년 1월에는 어네스트 피셔(J. Ernest Fisher) 등 연희전문 교수를 지냈던 선교사들이 입국했고 미군정의 인사와 교육 관련 부문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또한 하지는 1945년 11월, 미국무부에 개신교 측의 10명, 가톨릭 측의 10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pp. 228-230.

18) 윌리엄스는 “하지 장군이 이끈 24군단 1만여 명의 병사 가운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군은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부터 의사소통이 안 돼 일어나는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전한다. 윌리엄스가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미군이었는데, 그는 본래 하지의 24군단 소속도 아니었고 24군단을 호위하던 7함대 소속의 해군 군의관이었지만, 우연히 하지를 만난다. “애치슨, 이승만 싫어해 귀국 막았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15일. (검색일: 2017년 5월 20일)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는 것과 둘째, 미군정을 위한 한국인 인사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한국 지도자들에게 미군정을 대변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윌리엄스는 초기 미군정이 출범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가는 윌리엄스가 한국의 기독교 엘리트와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선호했고, 좌익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윌리엄스의 견해가 담긴 조사와 보고서가 초기 미군정의 방향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¹⁹⁾

한편, 윌리엄스는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처지를 동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그는 고발당한 부역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겉으로는 일제에 협력했던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비밀리에 저항하기도 했다’는 이들의 변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미국 선교사들처럼, 친일 문제에 관대했던 윌리엄스의 이 같은 견해가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이 미군정에서 다시 일하게 된 계기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²⁰⁾

미군정 초기에 군정 당국이 직면했던 과제, 즉 한국인 관리를 선발하는 인사 문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윌리엄스와 이후 미군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존재는 남한사회에서 미국과 기독교라는 배경을 지닌 정치인들이 성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²¹⁾ 선교사들은 미국 유학파들을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 식민지 시대의 미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교회를 통해 서구문화를 접했던 이들이었고, 자신들이 기독교인이거나 최소한 기독교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²²⁾

19)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1884-1953,” Ph. D. dissertation,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Virginia (2007). pp.169-175.

20)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pp.176-177.

21) 하가(Haga)는 윌리엄스가 추천해서 미군정(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에서 일하게 된 고위 관리 50명의 한국인들 가운데 70퍼센트가 기독교인(Christians)이었다고 설명한다. Kai Yin Allison Haga, “Rising to the Occasion: The Role of American Missionaries and Korean Pastor in Resisting Communism throughout the Korean War,” Philip Muchlenbeck, ed., Religion and the Cold War: A Global Perspective (Nashville, Tennesse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2012), p.92.

22) 미군정에서 활동한 미국 유학파로는 이묘목(하지의 수석 통역 겸 비서관), 정일형(인사 행정 처장), 하경덕(과도입법의원), 오천석(문교부), 이훈구(농림부장), 지용은, 조병옥(경무부장), 이용설(보건위생부), 고헌경(문교부), 유억겸(문교부장), 최순주(조선은행장) 등이 있는데, 대부분

개신교와 가톨릭을 망라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미군정의 신뢰와 기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정 장관과 선교사들이 가진 정기 회합이었다. 1946년 12월과 1947년 3월, 미군정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모든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한 ‘전문가’로서 미군정에 자문해 줄 것을 부탁 받는다. 이후 러치 군정장관은 1947년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러한 성격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군정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²³⁾ 선교사들을 활용하고자 했던 군정 당국의 의도는 당연히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과 개신교 교인들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

남한 가톨릭교회 역시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미군정과 한국 가톨릭교회와의 첫 만남은 미24군단과 함께 군중주교로 인천에 상륙한 스펔만 주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한반도에 상륙한 다음 날 서울에 도착하면서 바로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²⁴⁾ 강력한 반공주의자이면서 미국 정부에게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스펔만 주교를 통해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자연스럽게 미군정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스펙만 주교의 미사 봉헌 이후, 서울의 명동성당에서는 미군과 가톨릭교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어졌다. 우선 한국순교자축일에 독립 감사미사와 미군 환영식이 진행됐는데, 하지 사령관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노기남 주교에게 서한을 보냈다. 편지에서 노 주교에게 선물을 잘 받았다는 인사와 가톨릭 신자들이 새로 누리게 된 신앙의 자유가 다시 상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²⁵⁾ 11월 1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숨진 모

기독교계 인사들이다.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p.251.

23)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 사회학』(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6), p. 241.

24) 스펔만 주교는 강론 중에 한국 신자들의 환대를 고마워하면서, 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자로서의 친밀감을 표현한다. “내가 이곳에서 와 주교와 신부들과 이렇게 많이 모인 교우들을 만나보게 된 것은 나의 큰 영광입니다... 조선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이 조선의 해방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경향잡지』 1946년 8월 호, pp.10-12.

25) 이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잡지』는 하지 중장과 미군정 장관인 러치 소장의 종교를 알지 못하

든 미군을 위한 미사도 봉헌되었다. 이러한 행사에 아놀드 미군정 장관²⁶⁾ 등 많은 미군이 참가했으며, 이후 주일마다 명동성당에서는 미군들을 위한 미사가 정례화된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미군 장성 등 유력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²⁷⁾

사실 미군정 입장에서조차 통치 초기부터 적극적인 가톨릭교회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노기남 주교의 회고록에 의하면, 1945년 9월 12일에 미군정 사령관의 정치 고문인 나이스터 준장이 명동성당을 방문했는데, 나이스터는 노 주교에게 미국이 한국에 정권을 이양해줄 때 적합한 한국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다. 노 주교는 당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한국민주당’(한민당)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미군정 당국에 우익인사들로 채워진 6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전달한다.²⁸⁾

가톨릭교회에 대한 미군정의 호의는 1946년 5월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도 드러난다.²⁹⁾ 미군정으로부터 ‘반공 가톨릭’으로 인정받은 가톨릭교회는 군정 당국이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압수한 조선정판사를 불하받는다. 공산당 기관지가 발행되던 시설에서 이제는 남한의 가톨릭교회가 우익지인 『경향신문』³⁰⁾을 발

겠지만, 천주교 신자인 아놀드 소장이 미소공동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에 주둔한 미군 중 가톨릭 신자 비율을 알지 못하지만, 미군 전체로 보면 대략 3분의 1이 가톨릭 신자라고 추정한다. 『경향잡지』(1946), p.9, 27-28.

26) 아놀드 소장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매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신자로서 노기남 주교를 방문하고 대화하기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경향잡지』(1946), p.11, 62.

27) 여진천, “천주교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기여,” 『교회사연구』 제32집(2009), pp.169-170.

28) 1945년 9월 4일에 ‘한국민주당’(한민당)의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같은 달 16일에 창당대회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천주교 평신도 지도자들은 한민당에 대거 참여한다.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 사회학』, p.244.

29) 정판사 ‘위폐’ 사건이란 조선공산당의 자금을 위해서 조선공산당 간부와 조선정판사 직원들이 공모해서 위조지폐를 찍어냈다는 사건으로, 발표된 금액으로 따지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총 6회에 걸쳐 매회 200만 원씩 총 1,200만원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이 사건은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미군정 공보부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다. 재판 결과 피의자 10명이 최고 무기징역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의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사건의 대한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은 남한사회에 대한 미군정의 통치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의 조선공산당 탄압이 본격화되었으며, 조선공산당 역시 대미 강경 노선을 확고히 하게 된다. 임성욱,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재검토- 제1심 판결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114호(2016), pp.408-409.

30) 1946년 10월에 창간된 『경향신문』은 빠른 시간 내에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고 가톨릭교회가 대중적 영향력을 갖는데 일조했다. 당시 신문은 반공

행하게 된 것이다.³¹⁾

4. 가톨릭교회 선교사의 시각

한편, 미국 국적의 메리놀회 회원들을 비롯한 가톨릭의 선교사들 역시 미군정과 한국 가톨릭교회의 협력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시 한반도의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는 1947년 7월에 교황청 순시자(Apostolic Visitor)³²⁾로 임명된 패트릭 번 (Patrick James Byrne) 주교를 들 수 있다.³³⁾ 메리놀회³⁴⁾ 선교사로 1923년부터 1929년까지 평안도 지역에서 사목을 했던 번 주교는 1927년부터 평양의 감목으로 활동했고, 1935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 교토의 감목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으며, 지역 교회를 대표했던 경험을 가진 번 주교는 1947년부터는 바티칸의 공식 외교 사절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사실 해방 정국에서 번 주교가 보여준 역할은 선교사로서 미군정에 협력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번 주교는 바티칸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외교관이자 미국의 고위층과도 관계를 맺고 있던 고위 성직자로서 당시 남한의 정치적인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다.

번 주교가 1949년 2월 28일자로 극동 사령관으로 일본에 있던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번 주교는 맥아더에게 남한에서 반공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한다. 또한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번 주교의 이 편지는 그가 맥아더와 이승만 정부 사이

적인 색채가 강했으며 친미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김녕, “식민 통치, 해방, 그리고 분단과 한국 가톨릭 교회,”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상)』(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p.266.

31) 김재득, “미 군정기-장면 정부, 종교 정책 변동과 가톨릭 교회,”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중)』(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p.505.

32) 교황의 위임으로 어떤 교구나 수도회에서 교회법적 순시를 행하여 그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교황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임무를 지닌 순시자. 주교회의 천주교용어편찬위원회 편, 『천주교 용어집(개정판)』(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p.25.

33) 메리놀 R20 f.006. 아직 정부 수립이 되지 않은 남한에 공식 외교 사절을 임명한 것을 두고, 바티칸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교황 사절(Apostolic Delegate)이 아닌 과도적 성격의 임무를 갖는 ‘순시자’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번 주교는 1949년 4월에 교황사절로 임명되었고, 6월에 주교로 서품된다.

34) 정식명칭은 메리놀 외방전교회(Maryknoll Missioners(M.M.),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이다. 아시아 지역의 전교를 목적으로 1911년 창설된 미국 최초의 외방전교회이다. 1922년 11월 교황청 포교성성으로부터 평안도 지방의 포교권을 위임받아 한국과는 첫 인연을 맺었다.

에서 어떤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는 맥아더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미군의 철수로 위기의식을 느끼던 이승만은 맥아더의 도움이 절실했다.³⁵⁾

1951년 4월에 맥아더가 메리놀회 총장 레이몬드(Raymond A. Lane) 주교와 가진 인터뷰를 보면, 맥아더와 번 주교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터뷰에서 맥아더는 번 주교가 공산군에 의해 납북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상실감을 표현하면서, 미군의 일본 점령 초기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일본에 있던) 번 주교가 맥아더에게 큰 도움을 준 사실을 상기했다. 실제로 번 주교는 일본의 항복이 발표될 때, 미군이 일본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이와 같은 번 주교의 공로가 미군의 평화적인 점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맥아더는 번 주교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무쵸(John J. Muccio) 미국 대사 등의 관계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러한 번 주교의 노고에 감사하는 개인적인 편지를 교황에게 전했던 사실을 언급한다.³⁶⁾

번 주교와 미국인 선교사들은 미군정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톨릭교회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번 주교의 주된 관심사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1948년 1월 17일자 번 주교의 편지를 보면, 하지 장군이 매우 친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남한에 U.N. 사절단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하지 장군 자신과 그의 고위 장교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U.N.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련의 처지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닌, “러시아와 전(全) 세계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성취입니다.³⁷⁾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의 문제는 당시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번 주교의 견해는 무엇보다 남한의 공

35) 편지에서 번 주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으며, 다행히 남한 국민들 사이에 반공주의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메리놀 R20 ff.401-402.

36) 메리놀 R2 ff.023-024, f.028.

37) 메리놀 R20 f.107.

산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있었다. 미국인이며 가톨릭 성직자로서 메리놀회원들이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더구나 소련의 북한 지역 점령으로 인해 자신들이 활동했던 평안도 지역에 들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³⁸⁾ 이러한 번 주교의 입장은 미국인 가톨릭 선교사로서 반공주의를 지향하는 미군정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한국 가톨릭교회의 일관된 정치 노선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III. 공산주의 세력과의 충돌

1. 격화되는 대립

해방 당시 남한의 그리스도교인 대중들의 정치적 성향은 우익이라기보다는 중도적이거나 어쩌면 좌익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평화통일 노선이나 토지개혁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정 기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치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의 정치 성향은 극우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박해를 피해 38선을 넘어 온’ 월남자들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이 체험했던 박해의 경험이 38선 이북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1948년을 전후에서 남쪽에서도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좌익들의 적대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신자들이 공격을 받는 사례들도 생겨났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총선거가 있던 1948년 5월 첫 주간에만 그리스도교인 16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성과 강경에서 교회들이 파괴되었으며, 춘천에서는 가톨릭 선교사의 숙소가 불에 탔다. 1948년 10월의 여순 사건 중에는 한 마을에서 최소한 25가구의 교인 집이 방화되기도 했는데, 순천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살해된 것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다.³⁹⁾

미국인으로 골롬반회 소속 선교사였던 헨리(Harold Henry) 주교는 여수, 순천

38) 번 주교의 1947년 11월 4일자 편지를 보면, 소련에게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다는 언급이 있다. 메리놀 R20 f.079.

39)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pp.197-198.

사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⁴⁰⁾

경찰은 동결되고 반공주의자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고등 학생들이 총을 잡고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은 선생이나 학생 그리고 반공산주의자인 사람들을 숙청하였다. 순천에서는 이를 동안, 그리고 여수에서는 거의 일주일 동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반란자들은 교회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단지 사제관에 몇 군데의 총알 자국을 남겼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는 좌와 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종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갈등 역시 직접적인 폭력의 경험을 통해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무죄한 이들에 대한 박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익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등장했던 소수 세력으로 ‘개신교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좌우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공존을 추구하던 그룹들은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던 개신교 사회주의자들은 종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반면, 남한의 개신교 사회주의자들은 공개적인 전향을 요구받는다. 이들은 전향이 아니라면, 폭력적으로 제거되거나 월북하는 길을 택해야 했다. 사회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했던 종교인들에게는 월북이, 그리고 반공주의 종교인들에게는 월남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다.⁴¹⁾

앞서 언급한 남한 그리스도교인을 우익으로 기울게 한 ‘박해 경험’이 ‘비공식적인’ 폭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면, 북한 지역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소련 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정권 차원의 박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소련군 사령부는 북한 정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점차 배제하기 시작했는데, 평안도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이런 긴장 속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집단적인 충돌이 1945년 11월 평안북도 용암포에서 일어났고, 이는 신의주 학생 시위 사건으로 확대된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조사를 위해 김일성을 파견했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기독교사회민주당의 간부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⁴²⁾

40) 광주대교구사 편찬위원회, 『광주대교구 50년사』(광주: 빛고을출판사, 1990), p.129.

41)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7), pp.62-63.

42)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pp.61-62.

그런데 기독교사회민주당을 결성했던 목사 윤하영과 한경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사건 이전인 10월에 이미 남쪽으로 내려갔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월남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권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은 북한지역 기독교의 경제적 기반까지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소련군과 김일성 세력에 반대하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체포되거나 아니면 검거를 피해 월남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⁴³⁾

이에 비해 북한의 가톨릭교회는 1946년 초까지 소련군정이나 북한 당국과 큰 충돌 없이 지냈다.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시도했던 개신교와 달리, 일단 정세를 지켜보면서 특별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하지만, 1946년 봄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 결성되면서, 가톨릭교회와 북한 정권 사이에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 개신교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참여한 데 반해 가톨릭 측에서는 이 연맹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서기장 강양욱이 여러 번 홍용호 주교를 방문해서 천주교도 이 연맹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홍 주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서 홍 주교는 평양교구의 모든 신자에게 연맹 가입을 금지 시켰는데, “무신론자에게 일시적 또는 외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요,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⁴⁵⁾ 평양 교구장인 홍 주교가 공산당에 협력하는 것을 ‘배교’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가톨릭교회가 반공주의를 공식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1946년 3월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진행된 토지개혁,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던 초등 교육 기관의 국유화 조치 등과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반공 노선이 부딪히기 시작한 것이다.⁴⁶⁾

한편, 북한에서 급진적인 토지개혁이 단행된 것은 남한의 가톨릭교회에도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인철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한국 가톨릭교회

43)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p.63.

44) 소련군 사령부는 점령 초기에 평양의 주교관과 서포의 수녀원의 안전을 보증해 주는 등, 가톨릭교회에 호의적인 인상을 주려고 했다. 또한 일제에 의해 몰수당한 관후리 성당을 돌려달라는 가톨릭교회의 요청도 수락한다. 천주교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편, 『천주교평양교구사』(서울: 분도출판사, 1981), pp.192-193.

45) ‘가톨릭 신자는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없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어떤 글을 쓰거나 출간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교황청의 ‘공산주의에 반대에 대한 교령(Decree against Communism)’은 1949년 7월 1일에 발표했다. 따라서 홍 주교의 이 같은 강력한 반공주의적 입장은 보편 교회 차원의 바티칸의 선언 보다 몇 년을 앞선 것이었다.

46)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pp.144-145.

는 ‘교민주의’ 선교정책을 활용했는데, 이는 소작지를 운영해서 경비를 충당하는 한편 토지 임대를 통해 교인들을 유지, 확대하는 선교정책이었다.⁴⁷⁾ 1886년 한불 수교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자, 가톨릭교회는 효율적인 선교와 교회의 운영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 토지를 활용했다. 물론 교회의 입장으로도 신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작농 농민의 열망이나, 사회 정의를 향한 시대적인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토지개혁의 단행은 교회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같은 토지개혁은 교회의 운영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6년 3월 토지개혁으로 북한 지역의 가톨릭교회가 대부분 농토를 몰수당했다는 소식은 남한의 가톨릭교회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 내전 가운데 착수된 토지개혁으로 연길교구의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까지 접하면서 남한 가톨릭교회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두려움과 적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토지개혁을 일종의 박해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기관지인 『경향잡지』가 당시 토지개혁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다뤘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1946년 12월호, 1947년 2월호, 4월호, 6월호, 8월호를 통해서 연길지역과 함경도의 덕원교구 소식을 다루는데, 공산 세력에 의해 가톨릭교회의 토지가 몰수되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예를 들면 덕원의 베네딕도회 수도원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을 보도하는데, 여기서는 ‘가톨릭과 악마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언급도 등장했다.⁴⁸⁾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외 정세의 영향 속에서 북한 당국과 가톨릭교회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이제는 토지몰수와 같은 ‘경제적인 형태의 박해’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성직자에 대한 체포가 시작된다. 변 주교의 편지들도 이러한 박해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1949년 5월 26일자 편지에서 변 주교는 편지를 쓰기 며칠 전에 원산(덕원교구)에서 남하한 베네딕도회 수도원 신학생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수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천식을 오래 앓고 있는 병자인) 사우어(Sauer) 주교와 모든 독일인 신

47)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 사회학』, pp. 202-203.

48)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 사회학』, pp. 203-206.

부들과 한국인 신부들, 그리고 모든 독일인 수사들을 원산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원산의 독일, 프랑스, 한국 수녀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중략) 하지만, 평양 구역의 한국인 신부들은 아직 까지는 투옥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⁴⁹⁾

편지에서 언급하는 베네딕도회 덕원 수도원은 당시 독일인과 한국인 수도자 1백여 명이 생활했던 곳으로 함경도 지역 천주교의 중심이었다. 본원의 형태로 함경도 전역에 본당, 수녀원, 교육기관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덕원 수도원 자체적으로만 440헥타르의 대토지를 소유했다. 수도원 안에는 신학교, 인쇄소, 양조장, 정미소, 농장 등을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1946년 3월 토지개혁으로 토지 대부분을 몰수당한 이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박해가 계속됐다. 1948년 12월 수도원 정리 책임자 신부가 포도주 불법 제조 및 탈세 혐의로 체포되고, 1949년 4월에는 인쇄소 책임자 수사가 불온 문서 인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이어졌다.⁵⁰⁾

그 이후 기록인 9월 22일 자 번 주교의 편지에서는 독일인 수도원장인 사우어(Sauer) 주교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게 “한없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⁵¹⁾ 그리고 편지는 평양에서도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한국인 (홍)주교는 감금되었고 다른 신부들은 탈출했거나 열성적인 젊은 신자들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보초를 서며 지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⁵²⁾

번 주교의 편지 내용처럼 북한 당국은 194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평양교구의 경우, 1948년 여름에 이미 홍용호 주교에 대한 가택 수사가 시작되었고 평양교구 신부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었다. 마·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정세 속에서 평양의 교회들은 ‘남한과의 비

49) 메리놀 R20.

50) 장정란, “한국 성 베네딕도 수도회 출신 순교자 연구,” 『교회사 연구』 제33집(2009), pp.369-370.

51) 이 시기의 편지들에서 번 주교는 북한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박해 사례인 베네딕도회 덕원 수도원의 피해와 사우어 주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다. 베네딕도회의 자료가 기술하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 1949년 5월 8일 밤, 정치보위부가 덕원 수도원의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 주교와 루치오 로트 원장 신부와 아르놀포 술라이히 부원장 신부와 루페르토 클링자이즈 신부를 체포해 간다. 5월 11일 23시경에는 독일인 신부 8명, 한국인 신부 4명, 독일인 수사 22명이 체포된다. 원산 수녀원의 독일인 수녀 20명도 체포되었고, 그들은 이튿날 기차로 평양으로 압송되어 평양 인민 교화소에 수감된다. 덕원 수도원에 남겨진 한국인 수사 26명과 신학생 73명은 신학교에 갇혀 있다가 5월 14일 쫓겨난다. 선지훈, “왜관 수도원의 수도 생활과 선교 활동,” 『교회사 연구』 제33집(2009), pp.69-70.

52) 메리놀 P001 f.148.

밀 연락의 근거지'로 의심을 받았던 것이다.⁵³⁾ 1949년 5월, 덕원 수도원의 박해 소식을 접한 홍주교는 당국을 향해 항의문을 발표했는데, 항의문을 접한 북한 내무상 박일우는 면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홍주교는 박일우와의 면담이 예정된 5월 14일 오후에 서포의 수녀원을 혼자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행방불명되고 만다. 홍주교의 행방불명을 시작으로 1949년 12월까지 평양교구 소속 성직자 9명이 체포되었으며, 탄압은 북한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⁵⁴⁾

2. 38선을 넘는 종교인들

이처럼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면서, 1949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가톨릭의 일부 성직자와 적지 않은 수의 신자들이 월남하게 된다.⁵⁵⁾ 1949년 2월 황해도 신천 본당 구천우 신부가 반공 사건으로 연행되었다가 탈출하여 월남한 것을 시작으로 평양교구의 강현홍 신부, 연길교구의 김남수 신부가 월남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는 평양교구의 윤공희 부제와 장선홍 신학생이 월남한다. 가톨릭의 성직자는 이처럼 일부만이 월남했지만, 당시 가톨릭의 신자들은 상당수가 38선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⁶⁾ 평양교구의 경우 전체 신자 중 약 25%

53) 당시에는 남과 북 모두에서 그리스도교 종교인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두는 것이 꽤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출신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월남한 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간첩이었다고 기록한다. “평양에서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수립하자마자 북한의 많은 시민이 남한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북의 지도자들은 이 탈출을 은밀히 획책했다. 왜냐하면 서울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동시에 정부의 요소요소에 제 꼬나뿔을 두기 위함이었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배교한 목사나 신도들이 상당수 피난민을 위장하고 월남했다. 선배들 덕에 순교라는 영예의 후광으로 다소간 둘러싸인 그들은 이 대통령 측근에 있는 미국인 목사들을 쉽사리 속였을 뿐 아니라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울 정부의 모든 움직임을 정탐하여 평양에 있는 자기 상관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했다.” 구인덕(Coyos, Celestin), 『나의 북한 포로기』(왜관: 분도출판사, 1983), p.16.

54)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pp.151-152.

55) 북한의 가톨릭교회가 1946년 초에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거부하며 반공주의 입장을 밝혔지만, 가톨릭 신자들에게 대한 조직적인 박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교구의 경우를 보면, 1948년까지도 상당수의 신자들이 매일미사 참례했고, 새로운 입교자들이 증가하는 등 열성적인 종교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천주교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편, 『천주교평양교구사』, pp.204-205. 따라서 해방 정국 초기의 월남자들의 경우 종교적인 동기에서 월남을 결심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pp.146-147.

56) 천주교의 경우 신부 101명 가운데 월남자는 14명에 불과했다. 물론 신부의 총수에는 외국인 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평양교구의 경우에도 월남자는 16명 중 2명에 불과했고, 함흥·덕원 교구의 한국인 신부 중 월남자는 8명 중 1명뿐이었다.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p.430.

가 월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45년에서 1953년 월남자 비율이 북한 전체인구의 약 12-14%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⁵⁷⁾

이렇게 월남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가톨릭교회는 월남한 신자들과 성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월남한 신자들은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됐는데,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한 월남자들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이들을 박해한 북한 정권의 만행을 부각시켰다.⁵⁸⁾

1950년 5월 12일 편지에서 번 주교는 북한 정권의 성직자 수도자에 대한 박해를 다시 정리하는데, 이어서 월남한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한다. 그는 북한에서 월남한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이 사목했던) 옛 교우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여기서 월남한 신자들은 번 주교에게 북한에서 공산당에 협조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가족을 위한 식량 배급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 따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⁹⁾ 번 주교는 2백만 명⁶⁰⁾에 달하는 월남자들이 바로 북한 정권의 모순과 부조리를 증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1949년 9월 22일 편지),⁶¹⁾ 무자비한 박해를 피해서 먼 길을 떠난 ‘옛 신자’들의 증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경향잡지』 1949년 12월호는 서울에서 열린 평양교구 신도대회를 보도하면서, 월남한 신자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잡지는 월남한 신자들을 ‘도탄에 빠진 본향을 등지고 월남한’ 이들로 규정하면서 ‘공산도배들’에 의해 파괴될지 모르는 교구의 복구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⁶²⁾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서울교구 노기남 주교의 후원 아래 1949년 11월에 결성된 ‘천주교평양교구신우회’는 월남한 평안도 지역 신자들이 명동성당을 중심으

57)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pp.155-156.

58) 메리놀회 잡지 The Field Afar의 1950년 6월호에는 “Below the 38th Parallel”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많은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38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보도한다. The Field Afar (1950. 6).

59) 메리놀 R20 f.596.

60) 번 주교가 편지에서 언급하는 2백만 명의 월남자는 공산주의 정권의 모순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숫자로 보인다. 학계의 추산과 정부의 집계를 종합하면,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월남자 수는 대략 45만에서 74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p.410.

61) 메리놀 P001 f.148.

62) 『경향잡지』 1949년 12월호.

로 활동하는데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평양교구신우회는 비록 현재는 ‘실지(失地)한 교구’이지만, 교구민들의 결속력과 미래를 위한 대비로, 특히 성직자 양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들의 노력은 전쟁 이후에도 평양교구 출신의 성직자가 꾸준히 양성되는 성과로 나타난다.⁶³⁾

박해를 피해 월남한 성직자들도 남한 가톨릭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연길교구 성직자의 경우, 1947년부터 1950년까지의 인사발령에서, 해주본당, 후암동본당, 성신대학교 경리부장 등의 소임을 맡게 된다. 평양교구의 경우에는 1949년 9월에 월남한 중화 본당 주임 강현홍 신부가 서울 중림동 본당 보좌신부로 부임했다. 또한 1950년 초 덕원 신학교에 재학하다가 월남한 윤공희 부제와 장선홍 신학생은 서울의 성신 대학에 편입하여 같은 해 3월에 노기남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4월 인사발령에서 장선홍 신부는 명동성당 내의 성가기숙사로, 윤공희 신부는 명동성당 보좌신부로 각각 소임을 맡게 된다. 특히 진남포 본당 주임으로 있다가 1945년 9월에 월남한 양기섭 신부의 경우, 1946년 10월에 노기남 주교와 협력하여 『경향신문』의 창간⁶⁴⁾을 주도했고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⁶⁵⁾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성직자와 신자들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남한의 그리스도교가 반공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월남자들에 의해서 직접 전해지는 북한 정권의 만행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단죄의 대상이 됐다. 이제 남한의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공산주의를 용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⁶⁶⁾

IV. 가톨릭교회의 ‘이데올로기’

해방 후 한반도는 보편교회와 한국 가톨릭교회, 그리고 미국 가톨릭교회의 반공주의가 발전하고 구현된 하나의 장(場)이었다.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63) 천주교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편, 『천주교평양교구사』, pp.265-258.

64) 노기남 주교는 『경향신문』의 창간동기를 “유물공산주의, 극좌 악질분자들의 선전을 봉쇄하고 국민의 정신을 계몽, 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 사회학』, p.159.

65)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 사회학』, p.233.

66) 북한 지역의 가톨릭교회는 다른 종파에 비해 더 강한 박해를 체험했다고 평가되는데, 남한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반공주의 실천이 북한 정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있다. 예를 들면, 1949년의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성직자 체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 교구장 회의 명의로 1949년 4월 8일에 발표된 헝가리의 ‘민첸터 추기경에 처형에 대한 항의서’가 이러한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보편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국 가톨릭교회의 반공주의를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는 패트릭 번(Patrick J. Byrne) 주교의 시각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당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출신의 선교사이며, 고위 성직자였던 번 주교는 보편교회와 미국의 가톨릭교회,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1.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교회

앞서 언급했듯이, 번 주교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1948년 2월 4일 편지를 보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일본에 구축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그의 견해가 드러난다.

소문에 따르면, 미국(Uncle Sam)은 한국이 공산화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소문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나는 그 소문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구축한 공산주의를 막는 강력한 방파제가 공격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분단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⁶⁷⁾

번 주교의 이러한 판단은 당시 한반도에서의 독립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국제적-국내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었다. 실제로 1948년 1월 14일 미국의 ‘4부조정위원회’(SANACC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의 극동소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미국정책’(SANACC 176/35)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소련이 38선 이북지역에서 유엔이 감독하는 선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럴 경우 3월 31일 이남 단독 선거를 진행하도록 건의한다. 그리고 가능한 예산, 인력, 장비의 지원을 통해 국방경비대를 증강하고 신정부에 대해서는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일부 수정되어 1948년 4월 2일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NSC 8)으로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사고문단 설치안도 포함되어 있었다.⁶⁸⁾

67) Frederick C. Dietz에게 보낸 서한, 메리놀 R20 f.114 이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강력한 방파제’는 일본이다.

번 주교가 예측했듯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다면 이는 그 자신과 메리놀회가 간절히 원했던 평안도 지역에 대한 재진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번 주교의 입장은 단호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보다는 분단되는 편이 낫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번 주교의 반공주의 의식은 한반도 내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아직 일본에 머물던 1947년 2월 17일, ‘전후 일본에서의 교회의 입장’이라는 글을 N.C.W.C. News Service에 기고했는데, 전후 일본의 상황과 공산주의, 그리고 마일 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⁶⁹⁾ 이 글에서 번 주교는 전(全)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티칸과 크레믈린의 갈등까지 언급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해진 일본이 공산주의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가톨릭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고문에서 번 주교는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본인들도 가톨릭에 관심을 갖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불교의 성직자들도 반공주의 연합전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또한 일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일본의 ‘민주주의’ 정부가 미국의 가톨릭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새로운 일본이 보여주는 ‘친미반공’ 분위기를 전하면서 번 주교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일본에 있는 가톨릭 선교사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을 고수하는 한, 투쟁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일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데 기

68) 미군의 철수에 대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 슈티코프는 1948년 초까지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제안했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 등은 소련 측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1947년 9월 29일 미 각료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유엔 기관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듬해인 1948년 4월 2일에 채택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NSC 8)은 미군의 철수 기한을 1948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했는데, 1949년 3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다시 철군 기한을 1949년 6월 말로 연기한다. 김진형, “외국군 철수와 군사고문단의 활동: ‘군사고문단 설치 협정,’” 허은 엮음 『냉전분단시대 한반도의 역사 읽기: 분단국가의 수립과 국제관계(1)』(서울: 선인, 2015), pp.91-96.

69) “CHURCH WINS ALLIES FROM ALL SIDES IN JAPAN BY OPPOSING COMMUNISM, MISSIONER AVERS,” N.C.W.C News Service, 1947년 2월 17일. 메리놀 R2 Folder 1, f5, f6, f9.

여한다면,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때가 반드시 온다면, 우방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⁷⁰⁾

고위 성직자이면서도 스스로를 여전히 선교사로 의식하는 번 주교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가톨릭교회가 공산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반공주의는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번 주교는 이러한 기고문 등을 통해서 미국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전개했는데, 결국 번 주교나 맥아더 사령관 등이 지닌 그리스도교적 반공주의 사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⁷¹⁾

2. 번 주교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맥아더 사령관과 친분을 유지했던 번 주교는 전후의 마일 관계나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번 주교는 가톨릭의 선교사로서 전후의 일본인들의 고통을 연민하면서, 일본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1947년 7월, 한국에 대한 교황청 순시자(Apostolic Visitor)로 임명되면서 번 주교는 이제 냉전의 전선이 형성되던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 주교는 1920년대 평안도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는데, 이제 가톨릭과 공산주의 세력이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던 시기에 바티칸의 사절로 한국에 돌아온 것이다.

1947년 10월, 번 주교가 도착한 한반도에서는 분단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1948년 1월,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

70)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9월 8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기에 체결된 것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일본을 우방국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협약에 대한 준비는 1945년 8월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소련과 중국이 중소 우호 협약을 맺자, 미국이 일본에 대한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평화 협상의 절차를 만들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예비회담을 요청한 것이 1947년 여름이었던 것을 보면, 1947년 2월에 발표된 번 주교의 주장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서울: 후마니타스, 2015), pp.332-335.

71) 번 주교의 기고문 ‘전후 일본에서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전후에 고통 받는 일본인들에 대한 번 주교의 연민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 보이지 않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사실 단정 수립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톨릭교회의 지도부는 남한에서만이라도 반공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힘을 쏟는다.⁷²⁾ 이러한 상황에서 번 주교 역시 남한만의 총선거를 적극 찬성했다.⁷³⁾ 그는 총선거 실시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전(全)세계와 소련 사이의 대립, 더 나아가 선과 악의 대결로 표현하기도 한다.⁷⁴⁾

1948년 5월 10일, 비록 남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총선거였지만, 번 주교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정부수립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인을 사랑했고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로서, 번 주교는 분단이 한민족에게 무엇보다 큰 비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정치와 전체 가톨릭교회의 보호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세를 파악하던 번 주교에게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이 더 긴급한 임무로 여겨졌다. 더 큰 악으로부터 남한만이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번 주교의 생각은 그가 바티칸의 외교사절로서 보낸 편지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번 주교는 1948년 8월 1일 캐나다 주재 교황 사절(Apostolic Delegate to Canada)인 안토니우티(Antoniutti)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련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캐나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의 친구인 패터슨(Patterson)이 여전히 러시아를 공격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의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가 지시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⁷⁵⁾

72) 총선거를 앞둔 『경향잡지』 1948년 5월호는 <이태리 총선거와 조선에 총선거>란 제목의 기사를 실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다행히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전하면서 반공주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조선의 총선거에서도 교우가 출마한 지역에선 그에게 투표하고, 교우의 출마가 없는 지방에는 만일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출마하였으면, 출마한 미신자 중 제일 가톨릭에 가까운 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한다.

73) 가톨릭교회의 교계 구조상 교황의 사절로 파견된 번 주교의 정치적 견해가 한국 가톨릭교회에 적극적으로 수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74) 최선희 교수가 인용한 번 주교의 편지에 따르면, 선거에 앞서 하지 장군은 번 주교에게 교회 입장에서 선거일이 일요일이어도 괜찮은지를 물었는데, 노기남 주교를 비롯한 가톨릭교회는 이번 선거는 ‘성전(聖戰)’이므로 상관없다고 반응한다. 최선희, “한국 전쟁기 천주교회와 공산정권,” 『교회사 연구』, p.366.

75) Antoniutti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 메리놀20 f.321.

번 주교는 캐나다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한국 정부를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밝히는데, 바티칸의 외교관인 안토니우티 대주교가 이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⁷⁶⁾

사실 번 주교는 이를 전인 1948년 7월 30일에 캐나다의 외무 장관 루이스 로랑(Louis St. Laurent)에게도 장문의 편지를 보냈었다.

귀하의 부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받겠지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교인으로서 현재 한국의 사안, 특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에 관해서,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견해에도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한국인과 외국인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남한에서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을 것이며, 북한에서 종교를 말살시킨 악마적 무신론도 남한의 그리스도교를 마비시키지 못하리라고 확신합니다.⁷⁷⁾

편지에서 번 주교는 그리스도교와 악마적 공산주의를 대비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긴 글을 통해서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거국정부’로 인정하는데 캐나다 정부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편지의 서두와 그리고 말미에서 자신의 견해가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시각이라는 점을 강조한 번 주교는, 유엔 임시위원단의 정통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에 한국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참여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유엔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미국이 이전에 맺었던 조약을 지키고, 분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미국의 정의와도 연결된다는 주장을 편다.⁷⁸⁾

이와 같이 번 주교는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승인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경축식에서, 번 주교는 교황 비오 12세의 강복을 전하면서 축하 연설을 했는데, 이때의 연설문을 <뉴욕 타임즈>에 기고했다. ‘신생 한국 정부의 취임, 1948년 8월 15일’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번 주교는 한국인의 자유로운 선거로 출범한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전적으로 승인될 것을 확실하게 기대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교황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76) 실제로 캐나다는 1948년 12월, 대한민국 승인에 관해 유엔의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77) Louis St. Laurent에게 보낸 서한, 메리놀 R20 f.322.

78) 최선헌, “1940년대 천주교회의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회사 연구』, pp.154-157.

주권을 가진 국가로 승인되는 일을 추진한 유엔의 관심과 전적으로 일치해 왔다는 사실을 전한다. 변 주교는 교황 사절로서 한국의 탄생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합법정부로 승인 받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다.⁷⁹⁾

V. 성전(聖戰), 악과의 대결?

1. 전쟁에 대한 시각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한국 가톨릭교회의 지도부는 대체로 변 주교가 가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기간중에도 계속 발행된 『천주교회보』⁸⁰⁾에서는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시각이 드러난다. 1950년 11월 10일자에서 노기남 주교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무신론 공산주의 침략자들의 마수”라고 언급한다. 대구교구의 최덕홍 주교도 1951년 1월 14일자에서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위선적 평화의 약속으로 약소민족을 마비시키는 크렘린의 죄악”도 크지만, “양을 가장한 일희의 아편에 중독된 동족 아닌 동족이 가능한 온갖 악마적 방법을 다하여 빚어낸 참극”이라고 정리한다.⁸¹⁾ 당시 한국 가톨릭교회 수뇌부가 바라본 한국전쟁은 분명 ‘악마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성전(聖戰)에 가까운 것이었다. 전체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도, 전쟁초기부터 수많은 성직자를 잃는 등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증오는 ‘악마의 세력’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천주교회보』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시국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천주교회보』 1949년 11월 10일자를 보면, “우리 가톨릭은 천주를 거스르고 신을 부인하는 저 악마의 소산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개시한 지 이미 오래 전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신자들에게 비행기 헌납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⁸²⁾

79) 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회사 연구』, pp. 150-153.

80) 1927년 4월 대구교구 청년연합회가 월간지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1933년 폐간되었다가 1949년 복간됐다. 전쟁 중 유일하게 발행되는 교회 언론이었다.

81) 『천주교회보』 1951년 1월 14일자, 문규현,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Ⅱ-1945년부터』 (서울: 빛두레, 1994), p.220. 재인용.

이처럼 『천주교회보』와 『경향잡지』 등 당시의 교회 언론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공산주의와 대결에서 무력투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했다. 민족이 분단된 안타까움 속에서도 『천주교회보』를 통해 전달되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평화를 위한 노력과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반공정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적’에 대한 군사적인 투쟁까지 독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교회 언론의 이러한 논조는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에서, 가톨릭교회의 지도부가 취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에게 전시 동원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경험이 있었다.⁸³⁾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골롬반회의 잡지 *The Far East*에서도 한국전쟁은 ‘특집’으로 다루지고 있다. 1951년 2월호 미국판은 “한국의 골롬반회 희생자들”(Columban Casualties in Korea)란 제목으로 시작되는데, 지면은 킨란(Thomas Quinlan) 몬시뇰을 포함한 9명의 성직자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각각 실종되거나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⁸⁴⁾ 잡지의 독자인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무고한 성직자들의 희생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종교적인 열성 때문에 ‘세상 끝에서’ 어려운 선교활동을 펼치던 선교사들이 억울한 고초를 겪거나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⁸⁵⁾ 이처럼 선교사들의 희생에 대한 기사는 가톨릭 입장에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와 증오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하지만, *The Far East*의 편집자는 이러한 전쟁과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서도, 독자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951년 2월호를 시작하는 편집자의 글 중 일부이다.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떠나서 우리 잡지 전체의 주제를 한
국에 관해 할애한다.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82) 문규현,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Ⅱ』, p.217.

83) 예를 들면, 『경향잡지』 1941년 2월호는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에서 매월 첫 번째 주일을 ‘교회애국일’로 정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지나사변을 완전히 처리하고 더 나아가 대동아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는 데’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히 앞으로 전개될 ‘군기헌납운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경향잡지』 1941, 2, pp.39-42.

84) *The Far East*, 1951. 2, I.C.

85) 앞서 언급한 콜리어 신부의 기사에도 그가 새로 지을 성당의 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과잉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그것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선교사가 가지는 관점에서 한국에 관한 보다 명확한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1945년 이후의 한국을 사진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어떤 저의가 있는 복잡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이다. 지난 세계 대전 중에 일본에 의해 투옥됐던 선교사들은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인한 방사능에서 미숙하게 태어난 수상한 평화가 한국에 온 것을 지켜보았다. 이 낮은 평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렌지 빛 섬광과 함께 불타서 사라진 도시에서 흉터를 가진 일그러진 아이들처럼, 불구로 성장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평화가) 병약하다는 것을, 피상적인 생각들에 기초하기 때문에 빠르게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신부들로부터 온 편지, 전보, 라디오 메시지 등을 통해서 전해진 일기들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선교사들의 냉혹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한 새로운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⁸⁶⁾

The Far East의 편집자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이 단순히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공산주의라는 악마와의 싸움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전쟁은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잡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특히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편집자는 한국에 주어진 해방이 수상한(weird) 평화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⁸⁷⁾

앞에서 인용한 The Far East가 『천주교회보』와 달리 전쟁을 보다 복잡한 현실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쟁을 인식하는 다른 ‘신학적 입장’을 표현한

86) The Far East, 1951. 2, p.1.

87) 그런데, 몇 개월 후인 1951년 6월호에서는 전쟁을 바라보는 편집자의 시각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편집자는 전쟁을 “이 세계가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으로 내쳐지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정신을 누리는 것을 결정하는 시험대”로 본다. 특히 많은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치른 희생의 의미는 “공산주의가 확산 되는 것을 막고, 이 세계에 공산주의가 최종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The Far East, 1951. 6, p.1.

것이다. 이는 전쟁 ‘안에’ 있지 않았던 외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종교인의 성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The Far East의 편집자는 한국전쟁을 단순하게 선과 악이 대결하는 성전(聖戰)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전쟁으로 인해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2. 그리스도교와 전쟁

사실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이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실제로 전쟁에 대한 교회의 접근도 가변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밀튼 잉거(J. Milton Yinger)에 따르면, 그리스도교가 전쟁에 대해서 취할 수 있었던 입장은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의 스펙트럼 안에서 이루어진다. (1) 십자군 전쟁(crusade), 혹은 성전(holy war), (2) 정의로운 전쟁(just war), (3) 내키지 않는 슬픈 전쟁(reluctant and mournful war), (4) ‘이번 전쟁’에 대한 반대(opposition to ‘this war’), (5) 비폭력 저항(non-violent resistance), 소명으로서 평화주의(vocational pacifism), (6) 무저항(non-resistance), 징집등록 거부(refusal to resister), 세속사회로부터의 도피(withdrawal) 등이다.⁸⁸⁾

이 가운데 전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은 십자군 전쟁 혹은 성전으로, 이 같은 경우 교회는 전쟁을 기획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의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세속’의 이해관계 안에서 전쟁이라는 ‘악’의 중심에 섰던 역사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류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소수의 집단이었다. 폭력을 행사하는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변방의 존재들이었고, 오히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이 행사한 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약성서나 초기 교부들의 문헌들은 ‘세속사회’의 작동방식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평화주의’를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고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폭동이나 반란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 저항인 순교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성장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기에 이르자, 전쟁과 무력 사용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 권력과 공존하게 된 교회에게 전쟁은, 최소한 ‘필요악’의 수준에서라도 용인

88) J. Milton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70), p.460.

해야 할 실재가 된 것이다. 교회는 이제 전쟁의 폭력을 포기하는 대신 그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게서 시작된 ‘정당한 전쟁’ 이론은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기본 입장이 된다. 어떤 경우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⁸⁹⁾

그런데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쟁의 깊은 상처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공인해왔던 ‘정당한 전쟁’ 이론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된 것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두 번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경험은 교회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의 출현은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식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그 중심부에서도 전쟁과 무력사용을 무분별하게 정당화했던 역사를 반성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⁹⁰⁾

이러한 배경에서 발표된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SUMMI MAERORIS』는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19일에 발표된 이 회칙은 성년(聖年)을 맞이하는 교회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는데, 회칙에서 교황은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상기시킨다. 교황은 먼저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무기들이 군인들 뿐 아니라 민간인들, 약한 이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 원칙을 제시하는데, “무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교회)는 참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무력 사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⁹¹⁾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바티칸은 평화에 대한 교회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칙 『SUMMI MAERORIS』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성전(聖戰)으로 규정하려는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⁹²⁾

89) 강인철, 『전쟁과 종교』(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3), pp.236-237.

90) 강인철, 『전쟁과 종교』, pp.244-245.

91) 『SUMMI MAERORIS』, 5항, 10항, 12항.

92) 냉전이 구축되고 강화되는 시기였지만, 이러한 보편교회의 ‘변화’된 시각이 미국 가톨릭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편교회나 미국 가톨릭교회의 반

3. 성전(聖戰)을 주장하는 한국 가톨릭교회

보편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직면한 한국 가톨릭교회는 같은 민족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을 단호하게 성전(聖戰)으로 규정했다.⁹³⁾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참전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가 주도적으로 ‘가톨릭 부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50년 8월 부산 범일동 성당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던 서울교구와 북한 지역 출신 신부들 10여명은 ‘가톨릭 청년 결사대’를 조직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들 젊은 신부들과 신학생, 청년 신자 등 3000여명 규모의 부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국방부의 승인까지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기 공급의 어려움으로 실행되지 못했다.⁹⁴⁾

이처럼 한국 가톨릭교회가 전쟁에 임했던 자세는 ‘방어전쟁’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교회가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단정하고 적극적인 무력 사용까지 고려했던 이유는 우선 해방공간에서 강력한 반공주의를 실천했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신론적 유물론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은 북한 지역 가톨릭교회가 겪은 박해로 더욱 강화되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가톨릭교회가 반공주의 이외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반공은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 곧 신앙의 수호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정치적인 고려에도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노기남 주교의 행보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반공주의 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제 말기부터 한국 가톨릭교회의 대표였던 노기남 주교의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은 교회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으며, 역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가톨릭교회 전체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공을 위해서라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던 노 주교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48년 2월, UN 한국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노 주교는

공주의 입장이 전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견고했던 ‘이데올로기’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3) 앞서 언급했듯이,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성전(聖戰)이라고 인식했다. 물론 성전(聖戰)이란 용어가 주로 사상전(思想戰)이라는 측면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용어의 남용은 한국전쟁에서 교회가 물리적인 전투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었다는 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94) 강인철, 『전쟁과 종교』, p.272.

소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수립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노 주교에게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공산체제와 민주 체제 사이에는 타협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는 공산주의의 지배가 종교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UN에 분명히 밝힌다.⁹⁵⁾

이러한 인식하에 노 주교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해방 공간에서도 이미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정신을 가지고 반공투쟁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⁹⁶⁾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직면하자, 한국 가톨릭교회의 지도부는 망설임 없이 한국전쟁을 ‘사악한 무리’에 대항하는 성전(聖戰)으로 선언한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이처럼 주저하지 않고 한국전쟁을 성전(聖戰)으로 규정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전쟁에 협력했던 경험과도 연결된다. 특히 대동아 전쟁을 맞이한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는데, 이 시기의 『경향잡지』에는 매호마다 신자들에게 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 가지 예로, 1942년 3월호에 ‘대동아전쟁기구’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등장한다. ‘전쟁의 승리 위한 기도문’을 ‘매일 각 성당에서는 미사 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아침기도나 저녁기도 후에 바칠 것’을 독려한 것이다.

만민의 구원자이신 천주여 이제 대동아건설을 목표로 하고 매진하는 우리나라에 강복하시며 우리나라에서 나신 성인성녀들은 우리 기구를 전달 하사 하여금 제1선에 나선 장병들에게는 무운(武運)이 날로 날로 혁혁하게 하여 주시고 총후를 지키는 우리에게는 억조일심으로 각기 직역봉공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일사보국(一死報國)하려는 결심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욱 치성케 하여서 하루라도 속히 대동아 영원 평화를 확립하게 하시고 따라서 세계가 평화 중에 주의 성명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천주경, 성모경 각 세 번.⁹⁷⁾

전 국민이 동원되었던 전시체제에서, 가톨릭교회의 협력은 이러한 기도운동에 그치지 않았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조직까지 결성하게 된다.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과 같은 조직들은 청년신자들의 참전을 독려했으며, 국방헌금과 병기 헌납운동을 장려했다. 다시 말해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수

95)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교회사연구』. 제35집, pp.78-79.

96)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p.74.

97) 『경향잡지』, 1942년 3월호, p.17.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인도적인 전쟁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신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애국으로 미화(美化)했던 것이다.⁹⁸⁾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실을 필요로 한다. 폭력이란 악이 허용되고, 중오가 극대화되는 전쟁을 지지하는 데는 더 큰 선(善)이라는 명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교회 지도층은 그 전쟁의 당사자인 국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이 신앙인의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회의 입장 때문에 정의로울 수 없었던 침략 전쟁에도 성전(聖戰)의 명분이 쉽게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전(聖戰)이거나 ‘정의로운 전쟁’이라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동안 국가의 침략전쟁 수행에 무비판적으로 협력했던 경험,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증오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무력 사용에 대해서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방공간에서부터 난무했던 성전(聖戰)이란 용어가 한국전쟁에도 아주 쉽게 적용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전쟁 중에 희생된 무죄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교회가 한국전쟁을 성전(聖戰)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강화시켰다.

4. 한국전쟁에서의 순교담론

한국전쟁을 신앙의 수호를 위한 성전(聖戰)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쟁 개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미국 지도부의 전쟁 인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9월 1일 미국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자유 이념’(the idea of freedom)을 강조하는데, 연설에서는 언론, 직업, 교육 등의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첫 번째로 언급된다. 트루먼은 한국전쟁이 그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역설한다. 11월 6일 연설에서는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개념은 “깊은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웃(국가)들의 행복을 걱정하고, 서로를 도우라는 신의 명령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트루먼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UN군 개입의 정당성을 찾으려했다.⁹⁹⁾

서울 수복에서 맥아더 장군이 보여준 행보도 전쟁에 임하는 그의 종교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시가전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맥아더는 수복을 기념

98)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사회학』, pp.96-101.

99)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pp.384-385.

하는 행사를 서둘렀다. 1950년 9월 29일에 거행된 이양식에서 맥아더는 UN군 장병들에게 “자비하신 신의 섭리의 은총으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유서 깊은 이 도시를 해방시켰다”고 연설한다. 이어서 맥아더는 이승만에게 헌법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격려하면서, 모두에게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자고 요구했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식(儀式)’을 통해서 한국인들과 서방 세계에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다. 맥아더가 의도했던 것은 그리스도교 배경을 가진 한국의 정치인들과 세계인들이 한국전쟁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¹⁰⁰⁾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국전쟁을 ‘십자군 전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순교자 담론의 형성과 함께 더욱 구체화된다. 전쟁 희생자를 순교자로 인식하면서 성전(聖戰)이라는 성격이 더 확고해진 것이다. 전쟁 발발 이후 첫 번째로 발간된 『천주교회보』는 ‘양을 위해 희생된 거룩한 목자들-순직(殉職)의 주교 신부와 전재(戰災) 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는다. 이 기사는 전쟁 초기에 납치 혹은 희생된 성직자들을 소개하는데 ‘피 뿌려 가르치신 그 정신 받뜨자!’라며 신자들에게 순교정신을 본받을 것을 강하게 호소한다.¹⁰¹⁾

전쟁 이전부터 벌어진 북한 지역에서의 박해 경험과, 이와 같이 전쟁 초기부터 공산군에 의해 다수의 성직자가 희생된 것은 가톨릭교회가 한국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순교담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회와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던 목자(牧者)들의 순교영성을 기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박해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를 강화하는 담론이 형성됐던 것이다.

전쟁 기간 중에 노기남 주교 역시 국난 극복을 위한 순교정신을 재차 강조한다. 1950년 12월 8일에는¹⁰²⁾ 전국적인 신자들의 기도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전승기원미사가 봉헌됐는데, 노 주교는 이 미사에서 국민들이 조국의 역사를 지키는 상황에서, “종교인은 순교의 정신으로 조국의 국난을 타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시기에 교회의 지도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신자들이 순교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했던 것이다.¹⁰³⁾

실제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중에 한국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이 ‘순교정신’을 자

100)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pp.382-384.

101) 강인철, 『전쟁과 종교』, p.231.

102) 12월 8일은 한국천주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이다.

103)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1945-1953,” pp.87-88.

주 인용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순교에 대한 대중적인 신심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영향이 있었다. 1946년은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1950년은 한국 순교복자 79위의 시복(諡福) 25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 시기에 ‘순교’에 대한 기념사업과 신심운동을 전개했다.¹⁰⁴⁾ 신앙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이렇게 순교 신심을 새롭게 소환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새로운 ‘박해자’로 등장한 것이다. 미군정이 제공하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공주의 투쟁은 순교정신과 쉽게 결합될 수 있어야 했다.

본래 가톨릭교회에서 순교는 최상위의 가치인데, 사실 순교 개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돼 왔기 때문에 단순히 정의하기 어렵다. 일단 어원적 의미에서 보면, 순교(martyrdom)는 희랍어 마르튀스(μάρτυς)에서 기원한다. 마르튀스(μάρτυς)는 희랍 문명 안에서 법정용어로, 공적인 차원의 “증언”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용어가 2세기경부터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을 위한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⁰⁵⁾ 박해시대의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세속 권력인 국가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신앙공동체는 이 ‘증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복음을 전파하고,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신앙을 증언하는 행위’를 순교로 지칭했다.¹⁰⁶⁾

이처럼 순교 개념은 그 기원에서 볼 때 ‘가장 종교적인(초월적인)’ 차원의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석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증언’이란 어원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순교는 사회적이며, 따라서 발생한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과 해석이 순교의 현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더 나아가 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순교자를 만드는 공동체의 ‘선전의 도구’가 되어왔고, 순교사가들 역시 ‘공공연한 선전원’이 되어 적대자들을 비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¹⁰⁷⁾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전쟁에 희생된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

104) 강인철, 『전쟁과 종교』, p.211.

105) 많은 교부학자들은 소아시아 교회에서 155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폴리카르포 순교록』(Martirium Policarpi)에서 μάρτυς가 처음으로 오늘날과 같은 맥락의 ‘순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06) 지성용, “순교의 현대적 이해와 가치,” 『가톨릭신학과사상』 제70호(2012), pp.203-205.

107) 최상도, “순교담론의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집(2014) pp.127-129.

가 구성되고 소비되는 현상 역시 순교 담론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순교자’들의 고난은 신자 공동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해석됐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는 한국전쟁을 공산주의라는 ‘절대 악’과 싸우는 전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¹⁰⁸⁾

VI. 나오는 말

그리스도교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평화를 위한 성사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세기에 들어 격화된 공산주의 세력과의 갈등과 동서 냉전의 진행은 교회가 평화의 중재자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가져왔다. 새롭게 등장한 무신론적 사상, 그리고 폭력의 경험은 교회를 위협하기에 충분했고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규모 폭력과 전쟁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교회의 평화’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상대를 ‘친구’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대립의 시대였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희생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고, 너무 적극적으로 ‘성전(聖戰)’을 수행했던 과거를 참회해야 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분단된 이 땅에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남겨져 있다. 서로를 악마로 만들었던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평화로 나아가야 하는 기회의 시간, 지금 우리 교회는 평화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지난 역사가 주는 가르침을 함께 고민하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지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현세에서 완성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108) 그러나 순교에 관한 현대의 신학적 논의는 순교가 폭력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데,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의 세르지오 탄자렐라(Sergio Tanzarell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순교자의 증거는 결코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것이며, 결코 증오나 원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순교자들은 무장하지 않은 증거자들이요 악의 모든 정당화를 꺾을 수 있는 행위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 가장 참된 비폭력의 촉진자로 나타난다. 순교는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영감을 받아 비폭력 행위가 되는 어떤 행동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다. 순교의 참된 핵심은 박해자의 악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자유이다.” 세르지오 탄자렐라, “순교의 결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편, 제3회 “순교”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2016), pp.36-37.

Abstract

The Challenges of the Catholic Peace Movement in the era of South-North Korea Reconciliation

Fr. Kang, Ju-seok

Director of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ttempt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d War of the 20th Century and Religion (Christian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tholic Church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Liberation, the Catholic Church maintained a thorough anti-communism ideology in the process of the Occupation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of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hurch recognized the Korean War as a holy war, a struggle against atheistic evil forces. The confrontation with the Communist forces, which the Catholic Church faced around the world, unfolded more intensely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on the past of the Church, which failed to become a mediator of peace amid the dichotomous Cold War and the chaos of war, will help to find roles of Christianity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 region that has yet to achieve reconciliation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s.

Key words: the Cold War and Religion, Anti-communism ideology of the Catholic Church, Religious Persecution and the holy war

논문접수일	2019.10.30	논문심사일	2019.11.15	게재확정일	2019.11.20
-------	------------	-------	------------	-------	------------